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2. 10.(일) 11:00, (지면) 2023. 12. 11.(월) 조간 배포 2023. 12. 8.(금) 오후

부산항 인근 바닷속 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항만과 바다를 만든다

- 올해 부산항 권역 5개소에서 침적쓰레기 등 1,059톤 수거 완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 한 해 동안 부산항 감만시민부두, 5부두, 묘박지, 물운대,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 등 5개소 인근 해역(42.8km²)에서 침적쓰레기 등을 1,059톤 수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크고 작은 선박들의 계류 및 통항이 많은 곳이다. 그간 부산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바닷속 침적쓰레기 수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7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항 인근 해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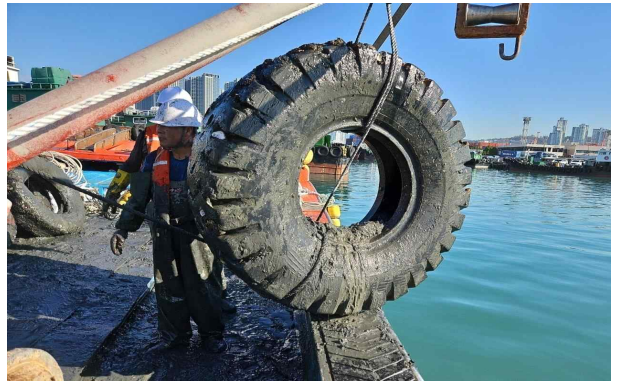
특히, 장기간 계류한 선박과 급유선 등 소형선박들이 밀집된 5부두에서는 선박의 이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총 두 차례에 걸쳐 페타이어 2,866여 개 등 303톤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또한, 시민단체 등의 제안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진우도 등 7개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컨테이너 등도 501톤 수거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닷속에 한 번 버려지면 수거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라며, “특히 선박 방충재로 사용되고 있는 페타이어가 바다로 버려져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한 만큼, 선주들께서도 노후 페타이어의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해양정화사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친환경 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등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책임자	과 장	류선형 (044-200-5300)
		담당자	사무관	서민재 (044-200-530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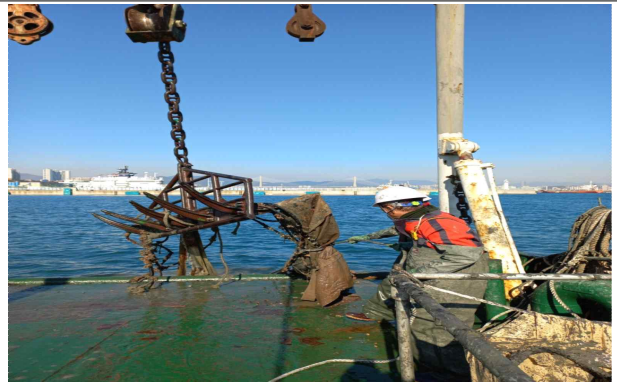
'23년 부산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사진)



<부산항 5부두 수거 현장>



<낙동강 무인도서 수거현장>



<부산시 물운대, 묘박지 등>